

“마음은 본래부터 형체가 없으나 경계를 따라서
 바야흐로 일어나는 것이며, 경계의 성품도 역시
 공허한 것이므로 마음의 경계도 그와 마찬가지로
 공허할 뿐인 것이도다! 몸과 마음이 한결 같으면
 몸이 별도의 여유가 없어도 산하와 대지가
 깊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도다!”

— 백운화상의 《직지》 중에서

부처의 마음 돈을 새긴 한 금속활자의 빛

《직지》의 산실 흥덕사지를 찾아서

우여곡절 겪으며 역사 앞에 다시 선 흥덕사

출발할 때 안개꽃처럼 흩뿌리던 눈발이 어느새 거센 눈보라로 변해 있다. 버스는 맹렬한 기세로 몰아치는 눈발을 가르며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낮은 목소리로 두런거리던 사람들도 잠이 든 듯 사위는 고요하다. 하염없이 창



● 복원된 흥덕사지 전경. 현판조차 없는 금당과 3층 석탑만이 오롯이 서 있다.

문에 부딪히는 눈발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속세를 떠나 무한천공의 우주를 질주하는 듯하다. 그 황홀한 눈보라의 희롱에서 깨어난 건 버스가 4차선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양쪽 길 어깨에 정답게 늘어선 플라타너스 숲길을 들어설 때였다. 《직지》의 산실 흥덕사지는 그 아름다운 가로수길에서 시내방향으로 9km를 더 달려야 한다.

흥덕사지는 청주 동북쪽 양병산 기슭 옛 연당 마을 양지바른 뜰에 자리잡았다. 그렇지만 9세기에 창건되고 15세기 경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될 뿐 흥덕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이 흥덕사가 6백여년의 침묵을 깨고 역사 안으로 등장한 것은 지난 1972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도서전에 《직지》가 출판돼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으면서부터다. 그 후 《직지》에 쏟아진 관심은 자연스레 흥덕사가 어디인가로 모아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흥덕사의 위치를 밝혀낼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흥덕사는 1985년 다시 역사 앞에 우뚝 선다. 1984년 한국 토지개발공사가 청주 운천동에 택지를 조성하다 이름 없는 절터를 발견했고, 이듬해 10월 청주대박물관 발굴팀이 본격적인 발굴에 착수해 “갑인 오월 일 서원부 흥덕사 금구일좌(甲寅五月日 西原府 興德寺 禁口壹坐)”라고 새겨진 쇠북과 “황통 십년 흥덕사(皇統十年 興德寺)”라고 새겨진 청동 발우(佛鉢) 등 20여점의 귀중한 문화재를 찾아냈다. 흥덕사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의 산실임을 세상에 알리는 순간이었다. 그 후 청주시가 5년간에 걸친 공사 끝에 청주고인쇄박물관을 건립하고 흥덕사지를 복원해 현재의 모양새를 갖췄다.

사찰 본래의 모습 복원하지 못해 아쉬워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일까. 설렘을 안고 찾아간 흥덕사에서 기지일행을 맞이한 건 너른 잔디밭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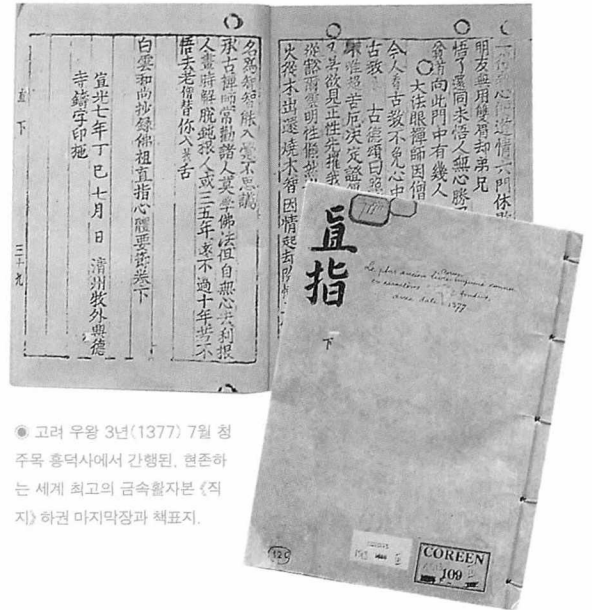
오롯이 서 있는 건물 한 채와 석탑이 전부다. 정면 5칸 측면 3칸에 겹처마 팔작지붕을 인 금당은 발굴 당시 드러난 주춧돌 위에 세워졌다. 하지만 그 원형을 알 수 없어 고려시대 대표적인 건축양식인 부석사 무량수전을 본떠 만들었다. 금당 앞에서 있는 석탑은 중원군 상



● 흥덕사지 발굴 당시 출토된 금구. 흥덕사가 《직지》의 산실임을 확인시켜줬다.

모던 미루리 3층 석탑을 모사했으며, 어림잡아 20여평 남짓한 금당 안에 모셔진 철불은 보물 제98호인 충주 철불좌상을 모델로 안치했다. 그러나 현판 하나 없는 금당 안에는 탱화도 수미단도 없다. 더욱이 바닥엔 마루가 아닌 보도블록이 깔려있어 그 차가운 바닥에 초연히 좌정하고 있는 철불이 안쓰러울 정도다. 점안조차 하지 않은 철불을 바라보고 있자니 자비로움이 넘쳐야 할 부처님 얼굴 가운데 유독 굳게 다문 입술만 도드라져 보인다. 오히려 개안하지 않은 편이 더 나을 듯하다.

도를 깨치면 마음이 곧 부처다 《직지》를 편찬한 백운화상은 태고보우, 나옹혜근과 더불어 고려 말기 조계종 계통의 큰스님이 다. 이름은 경한(景閑), 호는 백운(白雲)이며 충렬왕 24년(1298)에 전라도 고부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 불문에 들어 불학을 익히고 조용히 참선에 전념하며 선종을 체득했다. 그러다 중국 원나라의 석옥청공화상을 찾아 법을 묻는 한편, 인도의 고승 지공화상에게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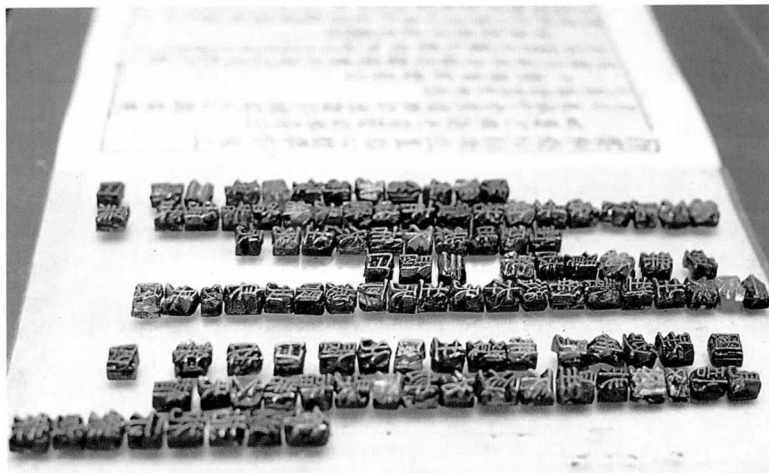
● 고려 우왕 3년(1377) 7월 청주목 흥덕사에서 간행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 하권 마지막장과 책표지.

르침도 받았다. 귀국한 후에는 황해도 해주 등지의 사찰에 주지로 있었으며, 말년에는 경기도 여주의 취암사로 거처를 옮겨 1374년 77세를 일기로 입적하기까지 후진 양성에 힘썼다.

흔히 《직지》라는 약명으로 불리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은 그의 나이 75세 되던 해인 1372년 여주 취암사에서 편찬했다. 일찍이 백운화상은 스승인 석옥화상이 건네준 《불조직지심체요절》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책이 너무 간략하다고 생각해 석가 이전의 칠불(七佛)과 석가로부터 달마까지의 28불 그리고 경(經) 논(論) 송(頌)에서 발취한, 선의 요체를 깨닫는 데 필요한 내용을 가려 뽑아 상·하 두권의 책으로 엮었다. 그러므로 《직지》를 흔히 《직지심경》이라 일컫는 것은 책 본래 뜻을 담아내지 못하는 잘못된 이름이다. 《직지》가 불경이 아닌 선가 입문서기 때문이다.

《직지》는 《불조직지심체요절》 《불조직지심체》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 등 다양한 약명으로 불린다. 그러나 《직지》가 함의한 중심주제는 ‘직지심체(直指心體)’에 있다. 그 뜻을 살펴보면, 수선(修禪)해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볼 때, 그 심성이 곧 부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참선해 도를 깨치면 마음 밖에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가 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백운화상의 선관을 짐작할 수 있다.

금속활자본 1종과 목판본 3종 전해져 《직지》는 현재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금속활자본 1종과 여주 취암사에서 간행한 목판본 3종이 전해진다. 그 가운데 유일한 금속활자본인 《직지》 하권은 잘 알려진 것처럼 프랑스 파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그마저도 첫장이 분실돼 총 39장 가



● 금속활자집 오국전세가 밀림구조법으로 복원한 금속활자들.



● 고인쇄문화전수관 금속활자 보관함. 《직지》 상·하권 복원에 쓰인 1만2천여 활자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다.

운데 38장만 남아 있다. 목판본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그리고 영광 불갑사에 남아 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목판본은 상·하권이 온전히 남아 있어 《직지》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흥덕사본은 백운화상이 입적하고 3년 뒤인 1377년(우왕 3년) 7월 그의 시자(侍者)이자 수제자인 석찬과 달잡 그리고 비구니 묘덕의 시주로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됐다. 그리고 목판본은 백운화상이 입적한 여주 취암사에서 1378년 6월 제자 범린이 중심이 돼 목판본으로 간행됐다.

그렇다면 《직지》는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본으로 간행한 뒤 왜 불과 1년도 안 돼 목판본으로 다시 간행됐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 몇 가지 설이 전해진다. 먼저 금속활자 인쇄술이 미숙하고 지방 사찰의 역량으로 많은 양을 인출하기 어려워 개판(開板)했다는 설과, 흥덕사판 《직지》의 소실에 따른 새로운 복간이라고 보는 설이다. 최근에는 또다른 주장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직지》의 정신 돌을새김하는

금속활자의 장인

— 고인쇄문화전수관장 · 금속활자장 오국진씨

고인쇄문화전수관은 고려 금속활자를 재현해 《직지》의 정신을 되살리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금속활자장 동림(東林) 오국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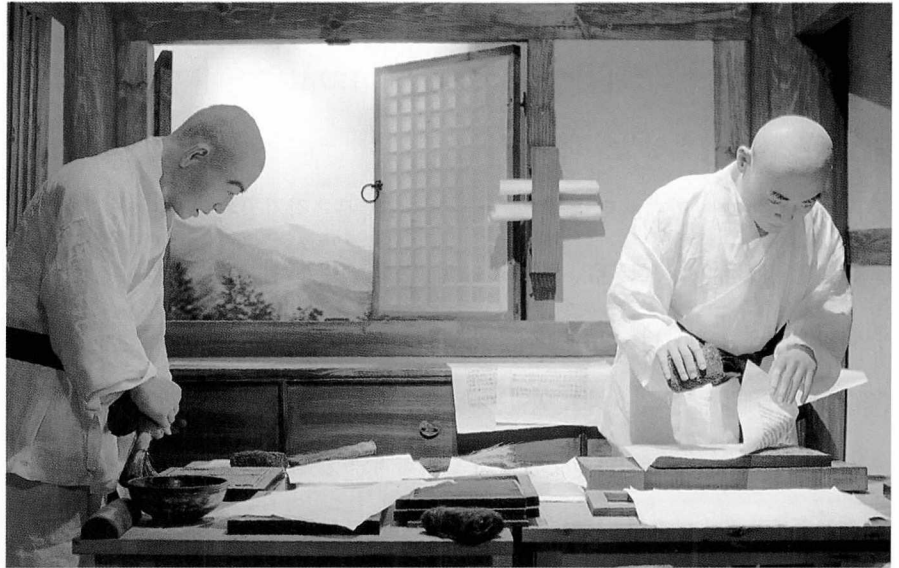


씨(57, 중요 무형문화재 제101호)의 작업실이다. 오씨는 이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목판과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훈민정음> 서문 등을 복원한 서각의 대가다. 그가 금속활자와 인연을 맺은 건 1972년. 당시 프랑스 국제도서전에 출품된 《직지》가 청주에서 인쇄된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라는 소식을 듣고서다. 그 순간 《직지》를 복원하는 일이 자신의 운명임을 깨닫게 됐다고 그는 말한다. 그런 그가 1996년 《직지》 하권에 이어 최근 상권도 완전 복원했다.

그는 “《직지》 상권의 활자는 하권의 서체를 본떠 만들었다. 《직지》는 원래 상·하권으로 발간됐으나 현재 남아 있는 금속활자본은 하권뿐이어서 작업이 더욱 힘들었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놓는다. 그가 이번에 복원한 금속활자는 5,562자. 하권에 쓰인 활자가 6천여자나 그동안 모두 1만2천여 활자를 하나하나 돌을새김한 셈이다.

갑년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그는 일단 일을 손에 잡으면 몸을 사리지 않는다. 하지만 《직지》 상권을 복원하던 지난해 초에는 뜻하지 않은 뇌경색으로 몸져 눕기도 했다. 그를 만나러 갔을 때는 다행히 거동은 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투병의 흔적이 역력했다. 《직지》 복원에 대한 감회를 물으니 그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금속활자에 대한 자긍심을 복돋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을 아낀다.

고인쇄문화전수관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는 전수생은 그의 아들을 비롯해 모두 여섯명. 아직 학업수행중이지만 10년 넘게 금속활자술을 익혀온 중견 활자장이라고 소개하는 스승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진다. 아직 병색이 완연하지만 다음에는 <남명천화상송중도가>를 복원할 예정이다. 이 책은 《직지》보다 140여년 전에 금속활자로 인쇄됐지만 목판본만 남아있는 희귀본이다.



● 청주고인쇄박물관 '직지 금속활자공방 재현관' 내부. 모델들이 완성된 활자를 인쇄하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황정하 학예실장의 주장이 그것이다. 황실장에 따르면, 1374년 백운화상이 입적한 후 스승의 뜻을 기리기 위해 흥덕사에서는 석찬이 중심이 돼 금속활자로 간행했고, 백운화상이 입적한 취암사에서는 범린, 자명, 혜전 등의 제자들과 일반시주들의 도움으로 《직지》는 물론 어록까지 목판본으로 간행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두 판본은 흥덕사와 취암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간행됐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취암사본은 목판이라 글자 하나하나를 새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흥덕사본은 금속활자를 이용해 더 빠른 시간에 인쇄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규명이 없으니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금속활자의 맥 이어주고 문화민족의 자긍심 일깨워

《직지》는 밀랍주조법이라

는 독특한 활자 주조법으로 만들어졌다. 밀랍주조법은 고려시대 사찰에서 사용했던 오래된 기법인데, 최근에 금속활자장 오국진씨가 전통적인 밀랍주조법을 이용해 《직지》 상·하권을 완전 복원하는 쾌거를 이뤘다. 더욱이 지난해 9월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영예도 안았으니 경사가 겹친 셈이다.

《직지》는 원나라의 굴욕적인 억압정치로 중앙관서의 금속활자 인쇄기능이 침체 또는 마비된 지 1백여년 남짓, 지방의 한 사찰에서 만들어졌다. 역사적 질곡 속에서 하마터면 맥이 끊길 뻔한 고려 금속활자 인쇄의 맥을 이어준 소중한 문화재다. 또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우리가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를 창안·발전시킨 문화민족임을 세계에 널리 알려준 자랑거리다. 그렇지만 정작 《직지》는 국내가 아닌 물선 이국땅에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청주시와 뜻있는 시민단체가 펼치고 있는 ‘직지찾기운동’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거두길 기대해본다. — 청주 · 박옥순 기자